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 산업부-해수부, 조선업계-해운업계 <'2+2' 동행>

- K-조선 및 K-해운, 정부와 업계 등 100명 대표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 조선·해운 상생발전 협약서 체결, 내년 1분기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가동
- 민관합동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출범, S.E.A. 전략 「‘속도(Speed)’, ‘연결(Engagement)’, ‘상생(Alliance)’」을 3축으로 본격 가동

조선·해운산업 상생,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 이하 해수부)는 공동으로 12월 29일(월) 16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동 전략회의에는 조선·해운·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장관 및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조선·해운 업계 대표 등 국내 조선 및 해운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Ⅰ 자율운항선박 M.AX (제조AX) 얼라이언스 본격화

글로벌 조선·해운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단계*를 추진하며 국제 항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2단계 개발 중점과제로 자율운항선박 실증데이터 확보 및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이하,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여 조선·해운·AI 산업 전반이 참여하는 공동 데이터 기반과 실증협력 구조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30년경 IMO 국제 표준 제정에 앞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 2020~2025년 총 1,603억원 / IMO Lv 2.5 기술개발 및 실증

이날 얼라이언스는 '속도(Speed)', '연결(Engagement)', '상생(Alliance)'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S.E.A.)를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하였다. 'S'는 속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가장 빠르게 개발·실증하여 국제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는 연결을 의미하며 조선-해운/대-중소/공공-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A'는 상생을 의미하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창출된 성과물들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생 구조를 확립해 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얼라이언스에는 산업부·해수부, 국내 대표 조선사, 해운사, 기자재사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네이버·KT 등 AI 기업들까지 50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얼라이언스를 본격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자율운항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들은 조선사가 보유한 설계·시운전 데이터, 해운사가 축적하는 실제 운항 데이터, AI 기업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역량을 결합하여 자율운항 AI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고도화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와 해수부는 내년에 세계 최대규모의 자율운항선박 AI 학습용 공공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에서는 자율운항선박 데이터의 확보 범위와 방법,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부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개발된 성과물은 표준화·플랫폼화·공공 데이터화를 통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생 구조로 활용된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데이터 공유와 실증 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② 대한민국 조선·해운업계 협력 본격화

이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한국해운협회는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조선-해운 협력은 국가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되고 있다. 양 협회는 내년 1분기부터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기술개발, 해운·조선·기자재·중소조선 업계 등 해사클러스터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국적선사와 국내 조선소간 선박건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해수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들에 대해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정책적 우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③ 조선-해운 원팀, Ride the Wave

['Ride the Wave'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gTqW3qOoSRE>]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조선·해운산업은 그간 험난한 파도를 슬기롭게 이겨낸 경험이 있는 만큼, 눈 앞에 다가오는 AI 파도도 업계가 힘을 모아 추진 동력으로 활용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은 M.AX 전략의 대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세계 최고 조선 기술에 AI를 결합한다면, 대한민국이 차세대 조선·해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며, “산업부는 해수부와 함께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데이터 활용,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자율운항선박을 조선·해운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자율운항선박은 글로벌 해운과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하면서, “해수부 또한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해운·조선산업이 자율운항선박을 선도하고 더 빨리 더 든든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홍길표 (044-203-433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책임자	팀 장	정동원 (051-773-6205)
	스마트해운물류팀	담당자	사무관	하보윤 (051-773-6202)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추진전략

속도 ▶ Speed

빠르게, 기술-데이터-표준 선점

연결 ▶ Engagement

조선-해운 데이터와 산업 연결

상생 ▶ Alliance

산업 생태계 균형성장

조선·해운 One Team, Ride the Wave

전략 | 01 조선·해운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지원시스템 구축

1 자율운항선박 얼라이언스



2 완전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3 규제제도 개선



4 세제 지원 등



전략 | 02 조선·해운 생태계 연결을 통한 전방위적 SI 확산



산업부 선박 SI 플랫폼 개발과 기가재 육성

해수부 선박 운항데이터 확보 및 실증지원

연구기관 AI 자율운항선박 IT 기업 참여

전략 | 03 AI 자율운항선박 데이터 가치사슬 강화



조선·해운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공공데이터셋 구축



조선해양산업 공동활용

전략 | 04 글로벌 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 리더십 강화

국제 표준 협력



◆ K-자율운항선박 국제 표준화 추진

IMO 공동 협력



◆ 신기술 실증을 위한 선제적 규제 완화
◆ 국내 개발 기술의 IMO 규정 반영

참고 2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개요

- 일 시 : 12.29(월) 16:00~17:00, 서울 롯데호텔 가넷스위트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조선협회장, 해운협회장, 조선사·해운사 대표, 기자재업체 대표, AI 전문기업, 대학·전문 연구기관, 해양진흥공사사장,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00여명
- 주요 내용
 - (추진전략 발표) 조선·해운·AI 업계 전반이 참여하는 공동 데이터 기반과 실증 협력 구조 구축 전략 발표
 - (조선협회-해운협회 MOU) 미래선박 기술개발, 중소 선박 건조 확대 등 상생 및 동반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
 - (산기평-해진공 MOU) M.AX 얼라이언스 협력, 자율운항선박 데이터 확보·공유 및 조선·해운 자율운항선박 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 진행 순서(안)

구분	시 간		내용	비고
개회	16:00~16:04	(04')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6:04~16:09	(05')	▶ M.AX AI 선박 동영상 시청	-
	16:09~16:19	(10')	▶ 개회사 및 축사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MOU	16:19~16:27	(8')	▶ 협력 기관 MOU 체결식	2건
사진촬영	16:27~16:32	(5')	▶ 참석자 기념 촬영	
발표 (3건)	16:32~16:42	(10')	▶ 얼라이언스 추진전략 발표	얼라이언스 위원장
	16:42~16:49	(7')	▶ 해운 AI 활용 전략 발표	HMM
	16:49~17:56	(7')	▶ 조선 AI 활용 전략 발표	아비커스
의견 발언	16:56~17:00	(4')	▶ 대표기업 발언	